



**SIMENON**  
*Maigret*

**02**

2011년 8월호 · 매그레 수사대



5 억 세 계 인 을

사 로 잡 은

추 리 문 학 의 신 대 륙

매 그 레 시 리 즈 를

읽 는 다



# CONTENTS

매그레 작품의 공간  
오픈 키드 4

뚜루의 밑줄 그리기 5 매그레 반장, 공포를 쫓다 11

매그레와  
식도락  
Poirot 12

매그레 캣 등장!  
엘리베이터 속  
진실을 찾아라!  
오픈 키드 16

매그레  
부인  
파헤친다  
과지모도 20

뚜루의 밑줄 그리기 6 매그레 반장, 빛을 쫓다 24

개와 인간, 공존의 존재  
영주 2 5

심농,  
쉬운가,  
어려운가?  
임호경 37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2 아잇 30

매그레 독자 조사  
매그레, 그를 만난 사람들  
J E R Y 3 2

epilogue 8 41

매그레 시리즈는 매월 20일, 2권씩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동시 출간됩니다.  
매그레 기동수사대의 웹진 <月刊 매그레>는 매달 초 네이버카페 열린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네이버카페 열린책들에 연재중인 매그레의 새로운 독법,  
번역가 이세욱의 <이세욱, 매그레를 찍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진 매그레 2011년 8월호 발행처 주식회사 열린책들 편집 제1기 매그레 수사대



@openbooks21

@Simenon\_Maigret 매그레

jules.maigret

openbooks21

www.openbooks.co.kr

## 매그레 작품의 공간

매그레의 공간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누런 개』

만일 매그레 시리즈를 시즌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작품 『누런 개』는 바야흐로 시즌 2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그만큼 『누런 개』는 그 이전의 작품과 구별된다는 것인데요, 거기다 그렇게 구별되는 점들이 또한 뒤에 이어질 작품들이 보이는 일련의 경향들까지 보여 주고 있기에 <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누런 개』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여 주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앞선 네 작품이 무엇을 보여 주려 하였나를 밝혀, 거꾸로 『누런 개』가 가지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지는군요. 그렇게 이 글을 무엇보다 매그레 시리즈의 또 다른 시작이라 할 만한 『누런 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팁 같은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데뷔작 『수상한 라트비아인』부터 네 번째 작품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까지 일련의 시즌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앞서 나온 네 작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간들에 집중하여 이 작품들이 어떤 일련의 주제들을 이어 오고 있었는가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누런 개』와 어떻게 단절되는지 간단히 밝혀 보겠습니다.

편의상 시즌 1로 묶은 매그레의 네 작품에서 첫 공간의 모습은 모두 중요합니다. 첫째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집약해서 보여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네 작품이 커다란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단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상한 라트비아인』부터 시작해 보죠.

이 작품에서 첫 공간은 바로 파리의 북역입니다.

거대한 유리 지붕으로 덮여 있음에도 플랫폼에는 난데없는 돌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붕에서 떨어진 유리 몇 장이 선로 사이에서 박살 나 있었다. 전기는 끊겼다 통했다 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추어올린 채 움츠린 자세였다.

파리 북역의 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리 전성기의 상징이자 파리 최대의 역으로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심농은 특히 이별하는 모자와 초조하게 기다리는 여인을 묘사한 뒤 다시 한 번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대한 역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이윽고 기차의 노란 불빛이 멀어서 반짝였다. 잠시 후 짐꾼들의 외침과 개포구로 치닫는 여행객들의 어지러운 발소리로 일대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북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흘러 들어오는 뒤섞인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이민자의 물결로 인해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 한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매그레가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심농은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전혀 존재감을 잃지 않는 매그레를 특히 강조합니다. 거대한 존재로서 매그레는 스쳐 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별과 기다림의 순간은 보내는 어머니와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병치되어 그렇게 또 『수상한 라트비아인』의 주요 테마이기도 한 <정체성 바꾸기>를 은밀히 드러냅니다. 사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물결 자체가 자신이 선택할 겨를도 없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가던 프랑



스인, 나아가서는 유럽인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그레만이 홀로 그들의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심농이 『수상한 라트비아인』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걸 상징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파리 북역의 모습은 『수상한 라트비아인』에서 심농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그대로 집약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갈레 씨, 홀로 죽다』의 생파르조 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그레가 사건의 전보를 받고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작은 마을 생파르조로 갔을 때, 파리에 있는 스페인 국왕이 방문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국왕을 경호하느라 모든 형사들이 파리 북역으로 파견되는 바람에 매그레는 홀로 생파르조 역으로 오게 됩니다. 심농은 이렇게 첫 작품에 나왔던 파리 북역을 다시 등장시켜 이 생파르조 역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왜소함을 강조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파리 북역과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생파르조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더구나 심농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스페인 국왕과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는 갈레 씨의 죽음을 또 그렇게 대비시켜 보여 줍니다. 한마디로 『갈레 씨, 홀로 죽다』의 〈생파르조 역〉은 그야말로 갈레 씨를 의인화시켜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레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역으로 있는지조차 몰랐던 한 사람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그것도 홀로 온다는 것은, 파리 북역에서 거길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매그레만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해,



생파르조 역의 전경

아니 매그레 시리즈 전체를 통해 심농이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유럽의 혼란한 상황과 경제적 궁핍으로 점점 잃어만 가는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자신만이라도 곳곳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일종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점점 왜소해져만 가던 한 개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되살려 그 자체로 온전한 개인의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생폴리앵에 지다』의 노이샨츠 역은 어떤가요?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역은 매일 노동자들을 태운 통근 열차가 바쁘게 지나가지만 국경을 넘는 통관 절차 때문에 잠시 머무를 뿐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역입니다. 그렇게 잠시 머무는, 이내 버려지는 역이죠. 흔히 움직이는 열차를 세월에 비유하듯이 그렇게 세월 속에 잠시 머무르다 잊힌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매그레는 이 작품에서 문제의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 바로 이 노이샨츠 역처럼 어느 세월인가 존재했었으나 이제는 묻혀 버린 한 사건의 전모를 결국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범죄는 과거에 일어납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 무관심 속에 버려졌던 타인의 삶을 온전히 복원해 낸다는 것은 갈레 씨와 똑같습니다만, 갈레 씨는 현재의 죽음이고 생폴리앵은 과거의 죽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현재에는 부재하는 죽음이어서인지 첫 장면에 등장하는 노이샨츠역의 존재감도 생파르조 역보다 더욱 열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머무르지 않는 역인 것



당시 노이샨츠 역의 전경

입니다. 누구나 다 서둘러 떠나려고만 드는 그 역은 과거의 죽음으로 달아나려고만 하는 등장인물들이 의인화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폴리앵에 지다』에서의 노이샨츠 역도 그 소설에서 심농이 하고자 했던 얘기를 집약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농은 모두 기차역에서 출발했습니다만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에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기차와 자동차에 의해 상대적으로 교통수단

으로서의 중요성이 덜해진, 시대에 뒤쳐진 <운하>가 첫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부>가 나오는 이유는 두 필의 말이 운하 독길에서 배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엔 또 하나 시대에 뒤쳐진 존재, 자동차에 의해 시대의 뒤안길로 밀려난 <마부>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한 공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면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는 그야말로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로지 시대에 밀려난, <부재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주 무대가 되는 화려한 요트조차 이름이 <서든 크로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십자성은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자리죠. 그렇게 또 <부재>를 포상하는 존재입니다. 심농은 왜 그랬을까요? 왜 유독 이 작품에 그렇게 부재한 이미지들로만 채우고 있을까요? 저는 앞서 『생폴리앵에 지다』를 심농 자신의 참회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폴리앵에 지다』에 나오는 과거의 죽음을 그 자신도 겪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을 거기서 달아나려고 했던 사람의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매그레는 바로 심농 자신을 고발하기 위한 존재였죠. 그 자신의 참회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에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농은 여기에 아예 그 존재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복을 가하도록 합니다. 그가 당했던 아픔을 그 자신도 겪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는 그야말로 자학의 산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진정으로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위해 스스로 복부에다 깊이 칼을 찌르는 <할복>의 감행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존재를 지우려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욕망이 반영된 결과가 그렇게 부재하는 이미지들로 넘쳐 나는 첫 공간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아닐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때문에 그에게 보복을 가하는 그렇게 작품 끝까지 끈질기게 얽히고설키는 배의 이름에다 <라 프로비당스>, 즉 <신의 섭리>라는 이름을 붙여 준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직도 이 네 작품에 드러난 첫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엔 부족합니다. 저는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첫 공간의 묘사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에 따른 일련의 단계 같은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작품의 파리 북역에서 네 번째 작품의 라 프로비당스호까지 우리는 공간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결국엔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사람의 무리로 가득했던 북역의 공간이 점점 사람이 사라지고 공간이 줄어들더





니 급기야는 아예 머무르지 않는 곳이 되고 결국엔 역조차 사라지는 오로지 부재가 충만한 공간으로 되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일종의 연쇄로 보이니 여기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는 왜 그렇게 공간을 지워 나갈까요?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에서 공간의 의미는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심농은 거기서 공간을 한 <인간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해 보여 줍니다. <서든 크로스>는 심농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램스 경의 유일한 안식처였죠. 바지선 <라 프로비당스호>의 조그만 마구간도 그 누군가의 그러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결말에 가면 그 모든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처음 공간이 점점 사라졌듯이 램스 경의 서든 크로스도 바지선 <라 프로비당스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램스 경은 계몽 시대 이래로 퇴락해 버린 귀족 계급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라 그의 사라짐은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럽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섭리라는 뜻을 가진 라 프로비당스호가 비워짐은 그렇게 신의 섭리가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 유럽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농은 죄의 원인이 되었던 자도 그 죄를 심판한 신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전통적 의미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공간. 이제는 전혀 낯설게 되어 버린 공간. 그것이 바로 심농이 바라보던 당시의 유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앞선 세 작품도 모두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 처럼 <바뀌어 버리는 시대,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안식을 얻을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심농이 내린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입니까? 안식이란 그리고 무슨 의미입니까? 편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일상에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속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해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농이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도 바로 시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가져다준 명확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점점 세력을 더해 가는 파시즘입니다. 그는 뭔가가 꿈틀대고 서서히 촉수를 뻗어 오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불안은 그렇게 유럽 전체를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재를 심농의 매그레 초기의 네 작품은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담아내는 것을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로 종결한 심농은 이제 새 작품 『누런 개』에서부터 그가 추적하는 그 불안의 정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 합니다. 심농을 의사에 비유하면 이전의 네 작품은 일종의 환부의 관찰이 될 것이고 『누런 개』부터는 일종의 진단이 될 것입니다.

심농은 30년대가 가진 시대의 <대기>를 여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때와 지금의 우리와는 그리 별로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파시즘에 대한 두려움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예측 불가능하고 이전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온갖 부조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귀한 전통적 가치들은 자본에 의해 사라진 지 오래고 사람들은 당시의 유럽 산업 자본가들이 그랬듯이 타인들을 그저 이용 가능한 도구로만 여깁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롯 기득권들로 부터의 온갖 억압과 폭력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30년대의 유럽을 연상하는 게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그레를 읽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시즌 2로 이어지는 매그레의 추적을 같이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감히 끝맺어 봅니다.

# 매그레 반장, 공포를 짚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형사인 매그레 반장은 네로 울프 못지 않게 맥주와 샌드위치를 엄청나게 먹어 대는, 대식가이자 식도락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획에서는 매그레 시리즈에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독자의 입맛을 돋우어 줄 맛난 요리가 매그레 시리즈에는 가득하다.

## 1. 맥주와 샌드위치

매그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수상한 라트비아인』의 3장에서 폭풍우의 기세가 극에 달한 밤에 매그레 반장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경찰청에 도착한다. 그때 부하에게 주문을 부탁한 음식이 바로 맥주와 샌드위치. 매그레 반장은 맥주를 몹시 좋아하는 인물이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버즈북의



바게트 샌드위치

「매그레는 왜 맥주를 마시나?」라는 심농의 글에서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샌드위치. 이때 반장이 원하는 샌드위치는 바게트 빵 속에 야채와 고기를 푸짐하게 넣은 것이다. 이 음식들을 먹성 좋게 해치우는 매그레의 모습에서 대식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2. 주류와 절인 청어

『수상한 라트비아인』의 5장에서 매그레는 용의자를 쫓아, <개중 가장 수상적인 분위기의 주점>에 들어간다. 이때 남자는 압생트를 흉내 내 만든 술을 시켰다.



드가, 「Absentmindedly 마시는 여인」

떠보는 주인의 말에 남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처음처럼 아페리티프(식전주)를 훌쩍 들이켠 뒤 카운터에 빈잔을 내려놓고는 새로 채워 달라는 사인만 보냈다.

맥주 외에도 다양한 주류(주로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하품의 독한 술이 주류를 이룬다)와 와인도 종종 작품에 언급되는데, 향후 작품을 더 읽어 나가며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절인 청어〉에 대한 언급은 주인이 이것은 권유하는 장면뿐이고, 음식이 나오거나 먹는 장면은 전무하다. 하지만 절인 청어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명성 높은 음식이며, 청어 알을 소금에 절여 먹기도 하고, 훈제 구이 또는 샐러드와 혼합하여 먹기도 하는 등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는 음식이다. 그 외에도 절인 청어는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세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절인 청어

### 3. 닭고기와 샐러드

『수상한 라트비아인』에서 사환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메뉴는 굴과 닭고기, 샐러드였지요…….> 수준 높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닭고기와 샐러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이 작품



에서는 앞서 언급한 <절인 청어>와 마찬가지로 그저 닭고기, 샐러드라고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다.

#### 4. 마콩산 백포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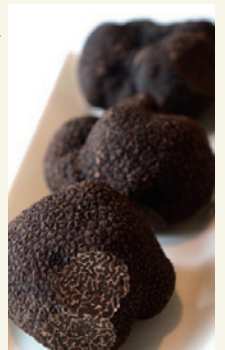
닭다리를 집어 들고 거침없이 먹어 댄 매그레 반장이 아쉬운 대로 라디에이터에 걸터앉아, 툭 던지듯 부하인 토랑스에게 <마실 건 없나?>라고 말한 뒤 토랑스가 가져다준 술이 바로 질 좋은 마콩산 백포도주이다. 마콩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풍부하지는 않다. 여기서는 매년 국제포도주박람회가 열리며, 시인 리마르틴의 출생지라는 점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마콩산 백포도주

#### 5. 푸짐한 야식

『수상한 라트비아인』에서 다시 모티머 부부는 캐비아, 샴페인에 절인 송로 버섯, 미국식 바닷가재, 치즈 등등 야식을 푸짐하게 먹는다. 작품 속 1930년대의 상류층이 즐겼던 진귀한 음식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 6. 파테 샌드위치

『교차로의 밤』에서 여인숙 안주인이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간 매그레 반장은 파테를 발견한 뒤, 빵을 큼직하게 자르고 백포도주를 주문한다. 반장은 허기가 졌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파테 샌드위치를 우걱 우걱 씹어 삼킨다. 파테는 돼지의 간이나 생선 등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오븐에 구운 프랑스의 전채 요리.



## 7. 크루아상과 카망베르 치즈



작품에 언급되는 음식은 아니지만, 무명의 작가 심농이 초기 작품들을 집필할 때 주로 먹었던 빵과 치즈. 조르주 심농은 이것들로 <연명>하면서 매그레 시리즈를 집필해 나갔다. 카망베르 치즈는 노르망디 지방에서 만드는 흰 곰팡이 치즈로서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라고도 불리며, 세계적인 맛과 명성을 자랑하는 치즈이다.

매그레 캣 등장!

쉬어 가는  
페이지

# 엘리베이터 속 진실을 찾아라!

by 오픈키드

매그레는 그야말로 직관력의 대가! 정말 직감 하나로  
범죄의 냄새를 맡고 단서를 찾아내고 해결까지 하게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당신의 직감은 어떻습니까?

자아, 어디 한번 매그레의 직감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



당신도 도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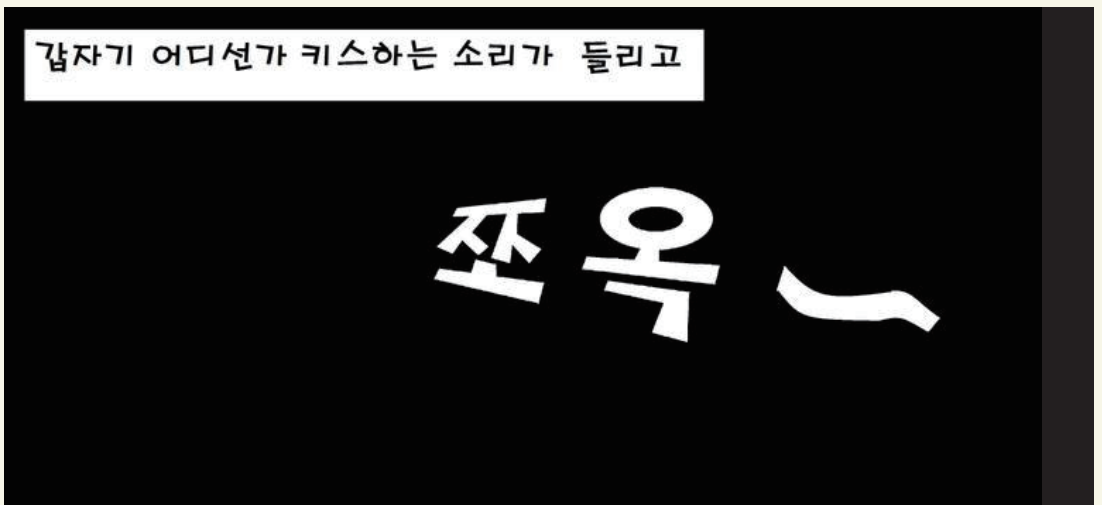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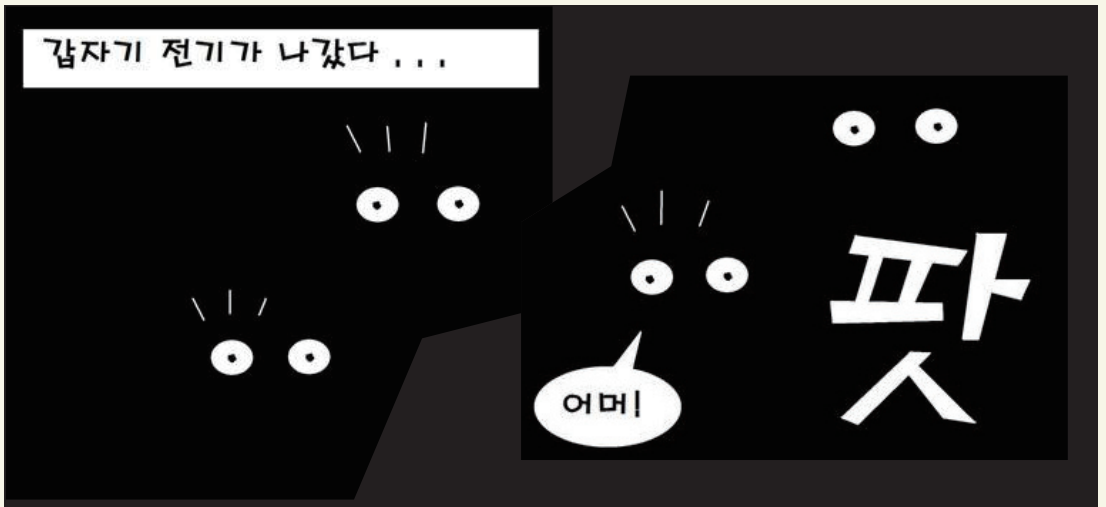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된 네 사람.....





그런데…….



그리고 세계 따귀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 짜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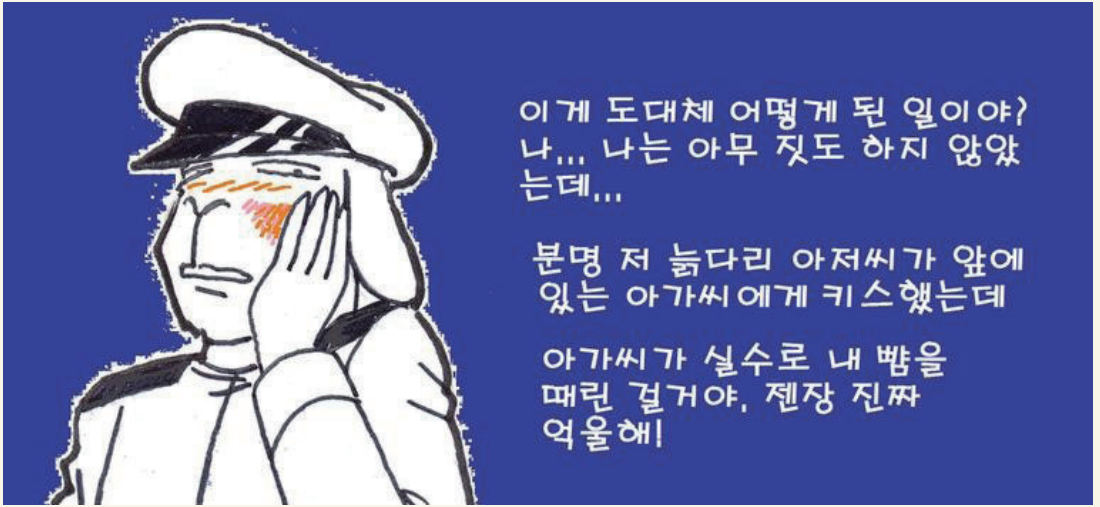
그리고 봄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생각했다…….



흥이 꼴 좋군,  
요즘 아가씨들은 자기  
몸을 돌볼 줄 안단  
말이야

나치들은 아주 괴상한  
취향을 가졌다더니  
사실인 가봐, ...  
나한테 키스하지 않고 분명  
저 늙은 부인이나  
뒤에 있는 아저씨에게  
키스했을테지, ...  
정말 이해가 안되는  
녀석들이라니까, ...





하지만 매그레만은 특유의 직감으로  
사건의 진상을 단번에 알아차렸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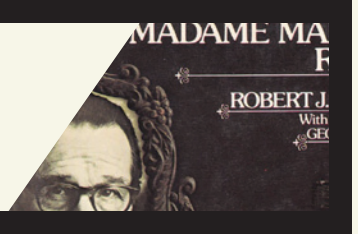
당신도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는가?

-> 정답은 41쪽에

왜 어릴 때 잡지 같은 거 보면 기사 사이사이에 쉬어 가는 페이지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나 작은 미스터리 퀴즈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짤막한 페이지를 좋아했는데요,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심심풀이용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매그레 캣은 사실은 첫 권 『수상한 라트비아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서, 그걸 <매그레 캣의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유모어 극장>이라는 제목의 만화로 그려 볼까 하고 만  
들었던 캐릭터였는데요. 『갈레 씨, 홀로 죽다』까지는 보였는데 『생폴리앵에 지다』부터는 그런 에피  
소드가 잘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만 출연 기회를 얻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기사에  
즉흥적으로 넣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잠깐 출연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사건의 에피소드 자체는 마틴 가드너의 『아하!』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틴 가드너는 이 에  
피소드를 조지 가모프와 마틴 스톤이 편찬한 『수학의 퍼즐』에서 가져왔다고 하는군요.



글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문제 하나.

매그레 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잠시 동안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 바로 다음 줄을 읽기 위해 내려 온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는다. 정답은 <루이즈>이다. 매그레 부인은 거의 모든 매그레 시리즈에 등장하지만, 대부분이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추리소설에서 신화적인 캐릭터가 된 매그레에 비해 그의 부인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칼럼에서는 매그레 부인에 관해서 다뤄 보려고 한다.

### 루이즈 매그레의 결혼과 가족

루이즈 매그레는 1880년대 후반이나 1890년대 초에 알자스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의 하기 전의 성은 레오나르이다. 루이즈에게는 네 명의 자매가 있는데, 엘리제, 오르탕스, 플로랑스, 오데트 라크루아가 각각 그들의 이름이다. 루이즈는 이중에서도 엘리제와 가장 가깝게 지낸다고 한다. 엘리제는 결혼 뒤 알자스에 거주 중이며, 매그레 부인을 만날 때면 항상 폴럼주를 가지고 온다. 그들은 종종 파리나 알자스에서 만난다.

아쉽게도 루이즈 매그레의 성장 배경에 관해서 알려진 바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녀에게 네 명의 자매가 있지만 그녀의 부모님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마치 루이즈의 삶은 매그레가 나타나기 전 까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크 보두가 쓴 매그레의 연보에 따르면, 질 매그레는 1912년 12월, 혹은 1913년 1월 경에 루이즈와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매그레의 나이는 27세이다. 12월 질과 루이즈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 둘은 슈브뢰즈 계곡의 어느 작은 숲속에서 처음으로 육체관계를 맺었다. 『매그레 삶을 즐기다』)

이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매그레는 부인이 휴가를 떠났을 때, 마치 파리 시내가 빈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곤 한다. 부인 역시 매그레 반장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준다.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 와중에도 이 부부에게 커다란 흠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매그레 부인은 이를 커다란 슬픔으로 여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루이즈의 자매 중에서도 오르탕스 역시 자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어쩌면 레오나르 가문의 가족력일지도 모르겠다.

### 루이즈 매그레의 성격

루이즈는 미신을 믿는다. 『교차로의 밤』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당신 오늘 오른손으로 문을 여네요.....」

그것은 그의 습관에 반하는 일이었다. 그는 늘 왼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매그레 부인은 미신에 연연하는 자신의 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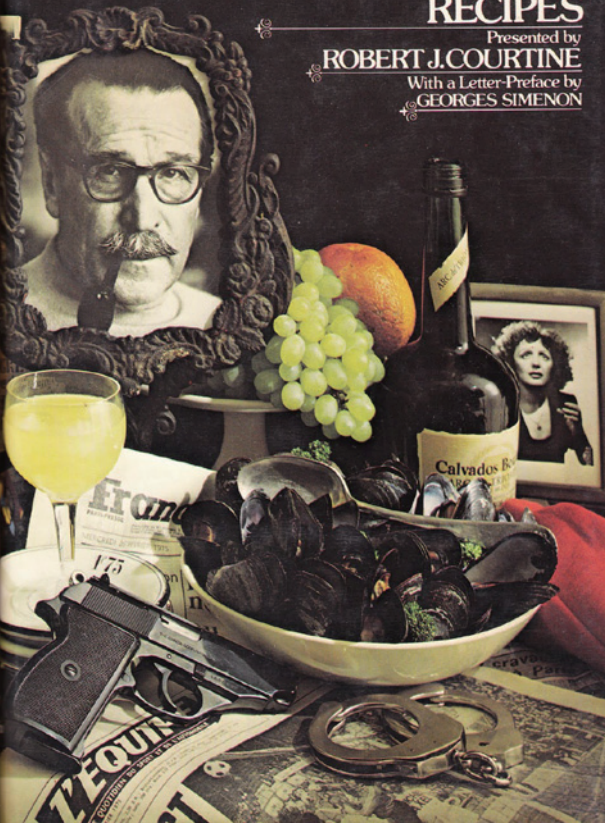
하지만 미신을 믿는 정도는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미신을 믿는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성격이다.

루이즈는 특별한 경우에만 매그레를 <매그레> 하고 부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루이즈의 매그레 반장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존경심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루이즈는 19세기 말에 태어난 여성답게 여전히 남성을 우러러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종종 매그레 반장의 마초적인 성향이 지적되곤 하는데, 매그레 부인 역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적인 성향들이 짙게 발견되곤 한다. 가사 중심적이고, 요리에 능하며,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고전적인 현모양처의 모습들 말이다.

그 외에도 루이즈는 조용하고 느긋한 성격이다. 남편을 추궁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으며 말없이 묵묵하게 매그레의 삶을 보완해 준다.

# MADAME MAIGRET'S RECIPES

Presented by  
ROBERT J. COURTINE  
With a Letter-Preface by  
GEORGES SIMENON



로베르 쿠르틴이 1974년 펴낸 『매그레 부인의 요리법』

## 매그레 부인의 요리 실력

매그레 부인은 요리에 능하다. 『매그레 부인의 요리법』이라는 책까지 발간되었을 정도이니 굉장히 뛰어난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리소설사를 둘러보면, 유독 탐정들의 레시피를 토대로 만들어진 요리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네로 울프나 셉록 홈스의 레시피가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매그레 부인의 요리법』이 독특한 것은 보통의 요리책들이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을 빌려온 것에 비해, 이 책은 주인공이 아닌 부인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다. 이 책 속의 요리법들은 매그레 시리즈에 등

장했던 특별한 요리들을 묶은 것이라고 한다.

심농은 「50회의 생일을 맞은 매그레에게」라는 편지에서 이 책에 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당신과 부인이 즐거운 생일을 보내길 바랍니다. 부인께는 이 말을 전해 주세요. <요리의 왕>이라는 칭호가 조금도 아깝지 않은 쿠르틴이라는 분 덕분에 부인의 요리법들이 전세계에 알려졌다고요. 예를 들어, 그것이 일본이 됐든 남미가 됐든, 미식가들은 코코뱅을 요리 할 때 알자스 산 플럼주 몇 방울을 넣는 것을 잊지 않게 되었다고요.

매그레 부인은 음식을 만들 때 알자스 산 자두주를 자주 사용하곤 한다. 앞서 밝혔듯이 알자스에 거주 중인 루이즈의 동생 엘리제는 그녀를 만날 때 항상 자두주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 영화 속의 매그레 부인

매그레 부인은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매그레가 영화 속에 등장한 만큼 매그레 부인도 영화 속에 등장한다.

심농은 매그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어느 사랑스러운 일본 여인이 텔레비전에서 그녀의 역을 연기했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심농은 사토 토모미가 맡았던 매그레 부인을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토 토오미 (왼쪽)  
키어런 매튼 (오른쪽)

사토 토모미가 맡았던 매그레 부인은, 소설 속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설 속에서 매그레 부인은 사토 토모미처럼 이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라기보다는 가정적이고 순박한 인상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매그레 부인을 맡았던 가장 적격은 BBC TV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가 아닌가 싶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매그레 부인에 관한 궁금증이 이 부족한 글로나마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누런 개 한 마리가 남자에게 구타당해 처참하게 죽어 가고 있었다. 살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가엾은 동물은 듣기에도 너무 괴로운 신음 소리를 냈다. 한 방송사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보던 중이었다. 온라인에서는 곧바로 이른바 황구 학대 사건이라고 하여 이 사건이 이슈가 됐다. 범인 검거를 해야 한다며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너도 나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기가 마침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다. 나는 현실의 누런 개 사건을 목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르주 심농의 『누런 개』를 읽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심농의 소설 속 누런 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현실의 누런 개의 모습과 겹쳐지곤 했다. 두 마리 누런 개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끄찍하리만큼. 현실과 소설의 두 마리 『누런 개』 사건. 우연을 넘어선 필연일까 하고 생각했다.

누가 총을 쏘았어요. (.....) 누런 개가 지나가는 것을 집 창문에서 보고는.....

너석은 지금 잘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어요. (.....) 지금 유리창 너머로 너석이 보입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실제 『누런 개』와 소설 속 『누런 개』는 모두 인간의 잔혹함에 당했다. 한 마리는 몽둥이로 맞았고, 한 마리는 총에 맞았다. 그들은 겨우 목숨만을 부지했다. 인간은 그들이 개라는 이유로, 동물이라는 이유로 두 마리의 누런 개를 잔인하게 학대했다. 그들의 잘못이라고는 개, 그리고 개 중에서도 누런 개로 태어난 것밖에 없었다.

이르면 내년 1월 동물 학대자에 대한 징역형이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 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황구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함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안은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2012년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과 동물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동물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2011년 7월 4일 서울신문>

인간에게 당한 두 마리 누런 개의 억울함을 위해 또 다른 인간은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어느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억압할 수 있을까? 아무 이유 없이 학대 받고, 고통 받는 누런 개가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두 마리의 누런 개를 보며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추억이 아닌 후회로 남은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집 앞을 배회하던 개들을 늘 극도로 경계하며, 개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던 길조차 돌아가곤 했고, 어떻게든 괴롭혀 볼까 하며 괜스레 돌멩이 하나를 던지곤 했던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들, 누런 개를 경계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졌다.

험상곳어 보이는 그 커다란 누런 짐승 때문에 적잖이 썩었던 게 사실이다.

이 비극의 분위기 속에서 이 개는 무언가 불안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있다. 녀석의 색깔, 그 더러운 누런 색 때문일까?

현재의 나는 과거와 다른 나의 모습을 통해 지난 날 개에 저질렀던 나의 학대 행위를 반성한다. 당시에는 그것이 학대라는 것조차 몰랐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작그마한 검정 개 한 마리와 덩치는 큰데 애교가 많은, 털이 복슬복슬한 누런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개라면 질색하고, 일단 싫어하고 보던, 심지어 학대까지 저질렀던 내가 지금은 개라면 반색하고 좋아하게 된 것이다.

나의 이런 변화는 의외로 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찾아왔다.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생겨났는데, 이전까지 개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는 나는 그 존재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조금씩 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조금씩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을 향한 나의 관심과 애정은 지난 날 학대 행위를 잊게 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 것이다.

개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사냥에 적합한 신체적 특징으로 먹이를 잡기에 알맞은 치아, 강력한 턱, 예민한 후각 및 청각을 갖는다. 또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서로 협조한다. 개과와 그 근연동물들은 포유동물로, 식육목에 속한다. 모든 개는 겉모습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종인 카니스 파밀리아리스 *Canis familiaris* 에 속한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100 가지 이상 되는 품종을 선택적으로 번식·사육해왔다. 개의 행복과 정상적 성격은 무리 안에서 형성되는 다른 개와의 접촉의 산물일 정도로 개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고양이와 달리 개는 야생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으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무리의 지도자 혹은 사실상 대리 지도자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생활해 왔다. <다음백과사전>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해온 개. 사람에게 의지하고, 충성하는 동물, 친구, 개. 겉모습과는 관계없이 결국 1가지 종에 속하는 개.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누구보다도 반겨주는 <개>.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대며, 반갑다고 짖어대는 <개>를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날 수가 없다. 분명 그 사람들을 보고도 그랬을, 그러고도 남았을 『누런 개』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네발로 선 녀석은 체고가 상당히 높고, 몸뚱이는 바짝 야위었으며, 커다란 대가리는 마스티프와 그레이트데인 두 견종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개 중에서도 몸뚱이가 가장 크고, 얼굴은 유난히 험상궂어서 마치 금세 공격이라도 할 것 같은 누런 개. 그러나 마스티프나 그레이트데인은 특히, 충성심이 강하고 순종적이다. 소설 속 누런 개도 분명 충성스럽고 용감했을 것이다. 아무 죄 없이 학대당한 그 녀석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발견 직후 병원에 후송돼 안구 적출수술과 턱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황구는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었다. 황구의 수술을 담당한 수의사는 <골절면도 잘 아물었고 부어있던 상태도 염증없이 많이 아물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사람을 경계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 자리에 누워 벽만 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SBS 「TV 동물농장」 첫 방송 후 일주일 뒤 두 번째 방송 중 2011. 06. 19>



두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멋진 자태를 뽐내면서 길가를 배회하며 한번쯤은 강한 척도 해봤을 법한 현실의 누런 개. 처참히 당한 후 깊게 상처받은 그에게 나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만을 보낸다.

앞으로는 현실에서도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두 마리 누런 개가 존재하지 않길 바라며…….



### 그레이트데인

독일이 고향인 그레이트 데인.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커다란 덴마크의 개라는 뜻이라고 한다. 독일의 국견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크기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해도 체중이 50Kg 이상 나가는 초대형견이다. 애정이 많으며, 충성심이 강하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투견(마스티프)의 피를 이어받은 만큼 행동에 대담성이 있다. 머리가 좋아 주인과 가족에게는 착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줄 알며, 외부인에 대해 무조건 적개심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 마스티프

투견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품종 가운데 하나다. 크고 육중하며, 용기 있고 위엄이 있으면서 순종적이다. 현존하는 견종 중 다수가 마스티프의 피를 이어받은 만큼 뛰어난 개에는 틀림없다. 대형견의 일반적인 특징인 게으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의외로 민감하고 충실하다.

# 매그레와

# 수상한 퍼즐

자...다들  
돈보기 준비하세요



2

by 아잇

가로1		세로14			세로15	가로2	세로16		
				세로12					세로13
세로11		가로4				가로5			
가로6	세로9			가로7	세로10				
			세로7		가로8			세로8	
세로6									
가로10									
				세로3	세로4				세로5
		세로2							
가로12									
							세로1		
							가로13		
		가로14							

## 가로

1. 1942년 발표된 알베르 카뮈의 처녀작으로, <햇빛> 때문에 사람을 총으로 쏘죽이고 또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의 제목은? (열린책들 W세계문학 172번)
2. 바늘, 실, 골무, 형검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은 그릇.
3. 메주로 재래간장을 담근 뒤에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를 숙성시켜 만든 전통의 발효식품.
4. 의미와는 관계없이 한자 발음만 빌려 표기한 것 중의 하나로, <프랑스>를 단순히 우리 한글로는 무엇이라 하는가.
5. 거북목 자라과의 일종. 거북이와 비슷하나 다른 동물.
6. 모리스 르블랑의 뫼팽 시리즈에서, 뫼팽은 어떤 암호문을 해독하여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이 감춰져 있던 이곳을 자신의 아지트로 삼는다. 프랑스어로는 에귀유 크뢰즈.
7. <개리>와 <길>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힙합 듀오.
8. 1870년대부터 혁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시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력한 지식인의 삶을 묘사한 『○○ 삼킨의 생애』(열린책들, 1989)는 막심 고리끼의 마지막 장편소설이다.

9. 『제인 에어』의 작가 샬롯 브론티의 첫 번째 장편소설. 가톨릭교회, 귀족주의 등 권위적인 것들에 대한 경멸감과 남성의 모호한 성 정체성에 대한 표현의 이유로 작가 생전에는 출판이 거부되었던 작품은? (열린책들 W세 계문학 96번)
10.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와 같이 마술사들이나 마법사의 주문으로 널리 알려진 장난스러운 말. 〈○○○○ 마수리!〉
11. 헬레네 헤게만의 『○○○○ 로드킬』(열린책들, 2010)은 표절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출간 직후 독일 주요 언론과 비평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12. 본명은 소식(蘇軾). 중국 북송시대의 시인이자 문장가, 학자, 정치가. 자(字)는 자첨(子瞻)이고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인 이 사람은 흔히 〈○○○〉라고도 불린다.
13.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는 ○○○다」는 매회 7명의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500명의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받아 최하위 점수의 가수가 탈락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14. 『○○○○ ○○; 하늘을 나는 자동차』(열린책들, 2006)는 제임스 본드의 창시자 이언 플레밍의 작품이다. 이 책의 제목은 가수 이효리의 노래 제목과도 똑같다.

## 세로

1. 가장 위대한 프랑스 영화 스타라 해도 손색이 없을 〈장 ○○〉(1904~1976)은 매그레 시리즈를 영화화한 작품에 출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로는 「안개 낀 부두(Le Quai des brumes)」, 「프렌치 칸칸(French Cancan)」, 「고양이(Le Chat)」 등이 있다.
2. 매그레 시리즈 중 『누런 개』(1장 참조)에는 르포므레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어시장 앞에 있는 르포므레의 집을 〈○○○의 소굴〉이라 부르곤 했다.
3.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4. 열린책들 웹 카페(cafe.naver.com/openbooks21)에서 현재 〈매그레 와 수상한 퍼즐〉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의 카페 닉네임은 무엇인가(접니다, 저!).
5. 인공적으로 만들어 잇몸에 끼웠다 뺐다 하는 이. 같은 말로 의치(義齒).
6. 솔제니친의 20세기 최고의 고발 문학. 레닌의 지도 아래 스팅린이 자행했던 왜곡된 재판, 대량 처형, 야만적인 테러 등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은? (열린책들, 2009, W세계문학 18번)
7. 항해? 항공 등에서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 자오선(子午線)의 위도 1'의 평균거리를 말한다.
8. 우리말로 순화하면 〈엇갈림 길〉이며, 매그레 시리즈 6번째 작품은 『○○○의 밤』이다.
9.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이 모르는 사이〉라는 뜻. 〈○○○에 음모를 꾸미다〉, 〈○○○에 일을 진행하다〉 등과 같이 사용하는 말.
10.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기다란 날개그물을 쳐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배 사이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을 〈○○○ 어선〉이라 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동시에 주식을 매입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 장세〉라 함.
11.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의용군으로 종군한 프레드릭 헨리와 간호사 캐서린 버클리는 열렬한 사랑에 빠지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냉혹한 전쟁에 의해 비극으로 끝난다는 내용의,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은 『○○여 잘 있거라』이다.
12. 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를 말하며, 모진 재앙이나 타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흔히 〈○○○를 맞다〉와 같이 쓴다.
13. 매그레 시리즈 중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3장 참조)에는 〈서든 크로스〉라는 배가 등장하는데, 매그레가 불시에 그 배 위에 올라탔을 때 그곳에 있던 블라디미르와 네그레티 부인은 〈○○ 게임〉이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14. 정신을 잃거나 혼미한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보건 분야에서 이 말을 Syncope이라 한다.
15.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소규모 조직체인 반(班)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 (ex: 〈매그레 ○○〉)
16. 영장목 성성이과의 포유류. 유인원 중 가장 큰 종이다. 카지노의 블랙잭 게임에서는 이 단어를, 카운터에게 어떻게 게임할지를 신호로 받아 베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임자의 뜻으로 사용한다.

\* 정답은 41쪽에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죽고, 주변 인물이 드러나고, 범인이 밝혀진다. 매 권, 하나의 사건과 새로운 등장인물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추리 소설이다. 총 75권의 매그레 시리즈 역시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럿이 죽어 나갔고, 많은 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더는 비중이 없을 어떤 인물은 독자의 가슴 속 깊이 각인되기도 했다.

매그레 기동 수사대의 모임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매그레 시리즈를 향한 애정은 하나같음에도 그 안에서 기호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확인했다. 한 대원이 특히나 맘에 와 닿았던 작품에 대해 말할 때에, 경청하던 나머지 대원들은 각자 다른 책을 집어 들고 저마다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광경이었다. 이유는, 매그레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일컬어지는 특징과 일맥상통할 터이다. 그럴싸한 트릭이나 반전 대신, 인물의 사연과 삶을 묘사하는 데에 주력하여,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기 때문. 어떤 이가 이 이야기에 환호할 때에, 다른 이는 그 인물에 가슴 아파하며, 동시에 저들의 인생사에 깊이 공감하는 이가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매그레, 그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이것은 열린책들과 매그레 시리즈를 사랑하는 독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기획이다.

5개의 질문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타내 주신 독자 분들의 답변을 옮깁니다.

답변 아래에 참여 독자의 닉네임과,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 Questions

Q1.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긴긴 밤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 등장인물은?

Q2. 사비를 털어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고 싶은 비운의 인물은?

Q3. 좀처럼 정이 가지 않는, 유일한 캐릭터는?

Q4. 나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Q5. 내 삶과 한번쯤 바꾸어 살아 보고 싶은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 Answers

### A1. 매그레 반장의 아내.

왓지 화도 잘 내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만 같다.

### A2. 갈레 씨.

1~4권의 등장인물 중 아무래도 가장 측은하게 느껴지는 비운의 캐릭터이다.

### A3. 첫 권에 등장한 매그레 반장의 부하 형사.

비중 없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려 정이란 걸 느낄 틈이 없었다.

### A4. 『생폴리에에 지다』의 사건의 주인공, 루이 죄네 또는 르코크 다른비유.

나 역시 인생을 마구 낭비하는 와중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증오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 A5. 매그레 반장.

매그레 반장은 넉넉한 품채 덕에 둔할 것만 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빠르다. 나는 눈치라곤 없는 캐릭터기 때문에 한번쯤 눈치 빠른 인물로써 생을 살아보고 싶다.

mimi : 과거에 조직했던 히피파라다이스란 모임을 돌이켜 보니 자칫 목시록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 A1. 카를 안데르센.

기나긴 술자리 끝에 기품 있는 모양새가 흐트러지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다.

### A2. 매그레 반장.

동경한다. 아이돌 팬클럽에서 조공을 바치듯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다.

### A3. 한스 요한손

그냥, 왓지, 이유 없이 정이 안 간다.

### A4. 갈레 씨.

나 자신도 세상의 불운은 전부 혼자 짊어진 채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 같은 때를 지나왔으니까 i i i.

### A5. 매그레 반장의 아내.

매그레 반장의 사생활이 궁금하다!

메2저 : 장래에 매그레 반장처럼 인간미 넘치는 어르신이 되는 게 꿈!

**A1. 매그레 반장의 아내.**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점에 공감한다.

**A2. 매그레의 조수 토랑스.**

일찍 죽어서 더욱 아쉽다…….

**A3. 수상한 라트비아인의 한스 요한손.**

사연 설명을 들어도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다.

**A4. 뒤푸르 형사.**

고군분투하는 점이 닮았다.

**A5. 매그레 반장.**

당연하다.

**열린독자 :** 『수상한 라트비아인』만 읽어서 조금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더라도,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되길…….

**A1. 루이 죄네의 부인 잔.**

만난 지 두 달 만에 식을 올린 미스터리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A2. 갈레 씨.**

역시나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인물이다.

**A3. 특별히 없다.**

**A4. 루이 죄네.**

전문적 백수처럼 보이는 모양새나, 비극에 빠져 있는 면모가 현재의 나 자신과 닮아 있다.

**A5. 갈레 씨.**

그를 통해 현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경이란 것을 헤아려보고 싶다.

**pingpong :** 태어나 처음 제대로 읽는 추리소설, 매그레 시리즈의 매력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A1. 『라프로비당스호의 마부』의 장.**

영화 「인디애나 존스 4」에서의 옥슬리 교수를 연상시키는 애잔함.

**A2. 『갈레 씨, 홀로 죽다』의 조제프 뒤편.**

산재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에 총을 맞으면 아플 것 같다.

**A3. 『생폴리앵에 지다』의 빌리 모르티에.**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

**A4. 『라프로비당스호의 마부』에서의 이름 모를 수문지기.**

뒷돈을 좋아한다.

**A5. 뤼카 형사.**

웬지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 같기 때문이다.

아잇

**A1. 갈레 씨.**

삶에 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듯하다.

**A2. 부하 형사.**

죽었는데 밥 먹어서 뭐하겠나 싶긴 하지만….

**A3. 라프로비당스 호의 선장.**

이유 없음.

**A4. 매그레 반장.**

전 이미 매그레입니다.

**A5. 매그레 반장.**

이하 동문.

과지모도

**A1. 한스 요한슨.**

기구한 스토리를 더 듣고 싶다. 이 사람의 심리상태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팔라가 되면 버리고 도망가야지…….

**A2. 매그레 반장.**

거구라서 자주 먹어 줘야 하는데 못 먹어서 허기진 채로 땀 뻘뻘 흘리면서 수사하러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다. 부인이 집에서 밥해 놓고 기다리더라도 어쨌든 밖에선 먹어야 살 것 아닌가…….

**A3. 앙리 갈레.**

웬지 비호감 캐릭터이다.

**A4. 없는데……. 굳이 대라면 『갈레 씨 홀로 죽다』에 나오는 호텔 지배인?**

**A5. 매그레 반장.**

Julia : 아직 2권까지밖에 안 읽어 봐서 편향된 답변이 아닌가 싶네요. ^^



심농의 소설, 쉬운가?

쉽다고 하는 독자들이 많다. 어떤 블로거는 하루에 내리 두 권을 다 읽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술술 잘 읽힌다고 한다. 재밌게 술술 잘 읽힌다니 번역가로서는 고마울 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매그레 시리즈는 읽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우선 분량이 만만하다. 대중적 감각이 탁월했던 심농은 책을 잡은 자리에서 독파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영화처럼 적어도 2~3시간이면 독파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독서가 도중에 끊기지 않으니 몰입이 잘되고, 몰입이 잘되니 일사천리로 읽힌다. 또 머리를 고문하는 복잡한 트릭이나 추리도 없고, 심오하거나 따분한 철학적 담론도 없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할 뿐이다. 심농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젠가 프랑스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0 단어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계를 읽었다. 그러니 내가 추상적인 단어들을 써서 무엇 하겠는가? 추상적 단어는 두 명의 독자 머릿속에서 다른 의미를 띠게 마련이다. 결코 같은 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물질적인> 단어만 쓰려고 해왔다. 탁자, 의자, 바람, 비 같은. 만일 비가 온다면, 나는 <비가 온다>고 쓸 뿐이다. 내 책에서는 물이 진주가 되는 일 따위는 눈을 부릅뜨고도 찾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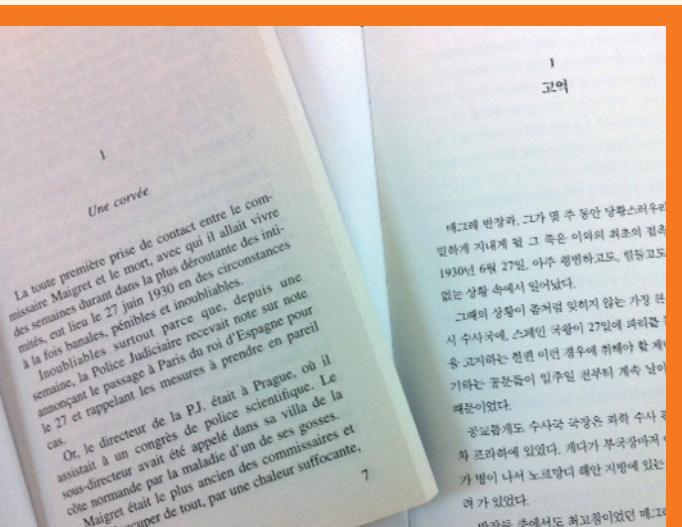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의 첫인상과는 달리, 그리고 심농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매그레 시리즈는 다가가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않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심농의 소설은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는 매그레 반장만큼이나 그 속을 파악하기 힘들다. 매그레의 표현 방식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그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자기가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알아냈는지,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미소 짓거나, 어깨를 으쓱하거나, 구시렁대거나, 소리를 뿜 지르거나, 담배 연기를 푸욱 내뿜을 뿐이다. 탐정을 통해 끊임없이 수사 브리핑을 받고 싶은 독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예를 들어 『누런 개』에서, 콩카르노의 주민 전체가 그를 원망할까? 심지어는 부하인 르루아에게조차도 매그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혹시 매그레 자신도 답답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그는 소처럼 성실하지만 재능은 약간 부족한 형사가 아닐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 그는 라미탈 카페에 도착했을 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를 직감하지 않았던가? 그의 틀림없는 직관과 경험은 처음부터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않았던가? 또 논리적 능력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아니, 사건 전체를 예리하고도 명쾌하게 브리핑하여 시장의 입을 딱 벌리게 만드는 그의 추론은 설록 홈스가 울고 갈 정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양반이 사건 해결을 질질 끈다. 아니, 마치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다 알고 있으면서, 원하면 언제든지 범인의 목덜미를 움켜질 수 있으면서 범인의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할 뿐 사건 해결에 선뜻 중지부를 찍으려 들지 않는다. 닥터 미슈의 공포가 충분히 전개되도록 놔두면서 느긋이 관찰하고 있는 반장의 모습은 차라리 사디스트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심농의 글 자체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별로 친절하지 않다. 심농은 자신의 글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일부러 어휘의 수를 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어휘의 한정은 번역자를 위한 배려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잠깐! 번역자를 위한 배려라고?…… 하지만 번역자로서는 조금도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휘가 단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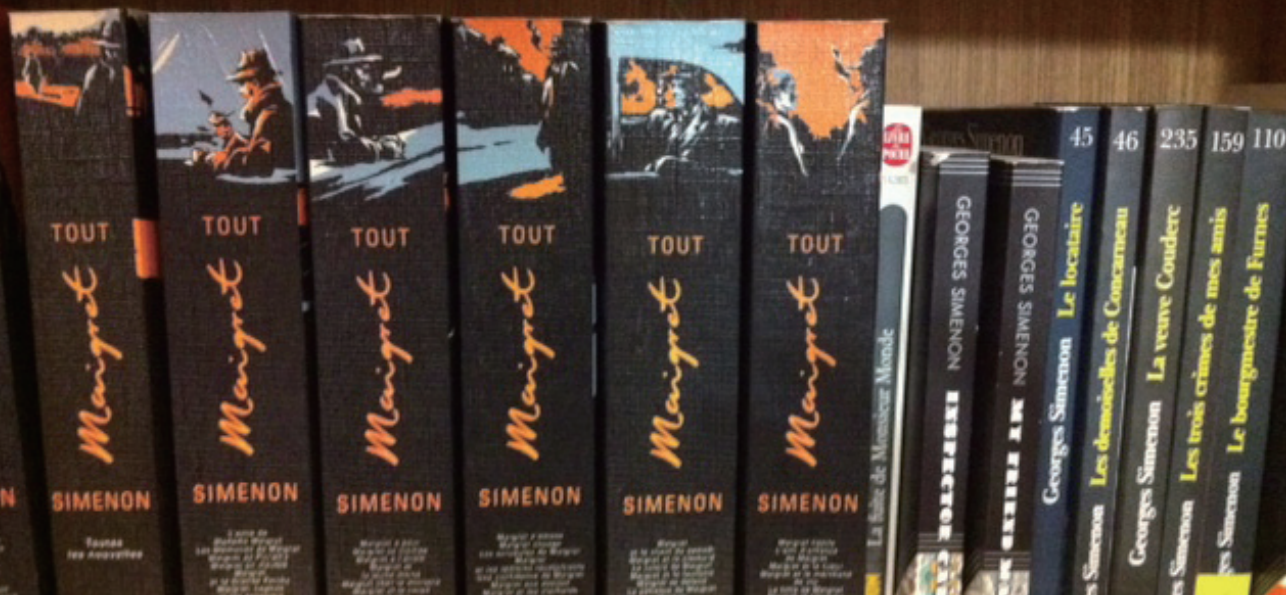
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매그레는 시도 때도 없이 grommeler한다. 그런데 이 grommeler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사뭇 달라진다. 어떤 때는 가볍게 구시렁대거나 투덜댄다는 의미이지만, 어떤 때는 그냥 혼자서 — 그 특유의 어조로 — 웅



『갈레 씨, 홀로 죽다』 프랑스어판과 한국어판

얼댄다는 의미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으르렁댄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grommeler이다. 또 sourire(미소 짓다)도 마찬가지다. 매그레를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이 미소 짓는데, 하지만 미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는가? 따스한 미소, 유혹의 미소, 비웃는 미소, 그리고 <씩소>도 있다. 이 많은 미소들을 제각기 다른 표현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다. 모두 다 <미소 짓다>라고 옮긴다 해도, 그 미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한 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텍스트 전체는 그야말로 삼천포로 빠져 버린다……. 번역가를 위해 일부러 물질적인 어휘만으로 한정했다고? 그것도 쉬운 어휘만으로? 심농씨, 이렇게 쉬운 듯 골치 아픈 텍스트는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왜 심농은 이런 텍스트를 썼을까? 시간이 없어서?(1931년 한 해에 무려 11권의 매그레 시리즈가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분석과 성찰보다는 본능과 직관에 의지하는 글쓰기여서? 물론 우리는 작가의 성실성에 대해 약간의 의혹을 품게 하는 이런 전기적 차원의 설명 말고, 다른 차원의 설명을 시도해 보고픈 유혹을 느낀다. 모두가 알다시피 매그레 시리즈의 본질은 <후더닛 whodunit>이 아니라 <와이더닛 whydunit>이다. 매그레는 왜 그렇게 한없이 미적대는가?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범죄의 규명이라기보다는, 그 범죄가 있게 한 삶의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범인을 빨리 잡아내어 범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범죄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한 가련한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경찰이라기보다는 고해신부이며, 그의 방법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이해이다.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는 삶



의 주변을 돌고 또 돈다. 선불리 설명하려 들지 않고, 다만 끈기 있게 묻고 듣고 관찰할 뿐이다. 꾸짖거나 호통 치지도 않는다. 기껏해야 뼈딱한 미소를 머금거나, 혼자 <구시렁덜> 뿐이다. 아주 화가 나면 그 왕방울만 한 눈으로 상대의 이마를 뚫어지게 노려볼 뿐……. 심농의 글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제시한다. 장소들을, 사실들을, 행동들을, 말들을, 그리고 표정들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설교하려 들지 않고, 다만 보여 주고 또 보여 줄 뿐이다. 하지만 그 행간들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는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생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가! 사기꾼 갈레 씨는 실은 가장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옛 연인을 죽인 프로비당스호의 마부의 사랑은 욕정인가, 열정인가? ……심농은 삶을 쉽사리 미화하지 않는다. 아니, 그가 그리는 세계는 너무도 암울하다. 오죽했으면 카뮈가 그에게서 <이방인>의 영감을 길어 냈다고 고백했을까? 하지만 심농은 결코 냉소적인 작가가 아니다. 안개와 폭풍우와 어둠에 잠긴 콩카르노 같은 게 우리네 삶이지만, 또 거기에는 매그레의 작은 파이프가 타고 있다.

심농의 소설, 쉬운가?

이에 대한 대답은 어찌면 심농의 이름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si - me - non.

그렇다si - 하지만mais - 아니다non.

삶이 그러하듯이.



월간 매그레  
8월호에 부처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정답〉

이	방	인			반	진	교	리	
		사	된	장		린			6
무		불	관	서		자	라		6
기	암	성		리	쌍				
	암		해		길	림		교	수
수	리	수	리		이			차	
용				후		아	훈	로	튼
소	동	파		안		잇			니
군		럼		무			가	수	
도		치	티	치	티	뱅	뱅		

〈매그레 캐트 퀴즈 정답〉

매그레캐트가 자기 손에다 진하게 키스를 하고  
나치 장교의 뺨을 세게 때렸다.

오픈키드

우리 어디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또 볼 수 있으랴!  
내 영혼도 그렇게 파이프에 담겨 음미되어 보고 싶은 사람, 매그레.

뚜루

매그레 반장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과지모도

기동수사대 자격으로 TV까지 출연하게 된 영광스러운 한달이었습니다.  
비록 통편집 당했지만! 잊지 않겠다 문화사색.....ㅋㅋ

영주

훗날 이름 모를 독자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웹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파자마  
마니아

독자의 마음까지 취조하는 매그레 반장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덩치 아  
저씨 매그레에게 의지하고 투정부리는 한달이었다.



각 인간에게는 다소 부끄러운. 그래서 벗어나려고 혹은 좀 더 깊숙이 숨기려고 애쓰는 어둠의 부분. 혹은 빛의 부분이 있다. 그것을 품고도 그럭저럭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를 괴롭힌다.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인물. 자신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똑같은 부끄러움에 시달리면서 똑같은 내적 투쟁을 벌이는 인물을 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라, 나만 그런 건 아니네. 그럼 난 괴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작은 드라마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인간이 똑같은 번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삶에서 누구나 탐내는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학과 위생』 과의 대답. 1968년

the end.